

수비가 비수...호랑이 6연속 위닝시리즈 실패



■ 2017KBO리그 순위

(4월23일 현재)

순위	팀명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연속
1	KIA	14	0	6	0.700	0.0	1패
2	NC	12	1	7	0.632	1.5	6승
3	LG	11	0	9	0.550	3.0	1승
3	SK	11	0	9	0.550	3.0	1패
3	kt	11	0	9	0.550	3.0	1패
6	롯데	10	0	10	0.500	4.0	1패
7	두산	9	1	10	0.474	4.5	1승
8	한화	9	0	11	0.450	5.0	1승
9	넥센	8	0	12	0.400	6.0	1승
10	삼성	3	2	15	0.167	10.0	4패

KIA, LG와 시즌 첫 3연전서 1승 2패

팻딘·정동현 패...양현종은 '진담 4승'

KIA 타이거즈가 '와일드 카드 설욕전'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KIA 타이거즈가 23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시즌 3차전에서 마운드 기싸움에 밀리며 1-7패를 기록했다.

팻딘이 투입됐던 앞선 21일 공·수에서 흐트러진 집중력을 보이며 2-6패를 기록했던 KIA는 이로써 개막 후 계속됐던 6연속 위닝 시리즈를 마감하게 됐다. 앞서 22일에는 양현종이 선발로 나서 5-4 승리를 이끌며 헛타에 이어 4승째를 수확했다.

고졸 2년 차 좌완 정동현(KIA)과 강속구의 소사(LG)와의 선발 맞대결로 진행된 경기의 추가 일찍 LG로 기울었다. 1회부터 양 팀 마운드 희비가 엇갈렸다.

KIA가 2사에서 안치홍의 중전안타에 이어 최형우의 볼넷이 나왔지만 나지완의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반면 LG는 2사 1루에서 KIA 마운드를 흔드는 한방을 터뜨렸다.

올 시즌 처음 1군에 등록, 첫 선발에 나선 정동현이 1회 선두타자 이형종을 좌전 안타로 내보냈다. 유격수 앞 땅볼로 선행 주자를 잡아낸 정동현이 박용택의 헛스윙 삼진으로 투아웃까지 만들었지만 히메네스에게 좌월 투런포를 허용했다.

운도 따르지 않았다. 0-2로 뒤진 3회초 선두타자 버나디나가 중전안타로 출루하며 공격의 물꼬를 텄다. 그러나 2번 이명기가 밀어친 강승 타구가 아슬하게 좌익 선

상을 벗어났다. 이어 우측으로 잡아당긴 잘 맞은 타구가 그대로 1루수 양석환의 글러브로 빨려들면서 베이스에서 물러나 있던 주자 버나디나까지 동시에 아웃됐다.

득점 기회를 놓친 뒤 다시 실점의 기록됐다.

3회말 정동현이 선두타자 히메네스에게 좌전 안타를 맞았다. 오지환을 1루수 땅볼로 처리한 뒤 마운드가 홍건희로 교체됐다. 그러나 홍건희가 연속 안타를 허용하면서 0-3이 됐다.

홍건희의 4회도 험난했다. 김용의에게 선두타자를 안타를 맞은 뒤 볼넷과 함께 폭투로 무사 1·3루에 몰렸다. 손준인의 희생플라이가 나오면서 0-4. 2루에 있던 주자 이형종이 도루로 3루를 홈런 뒤 이번에는 2루수 안치홍의 홈 악송구까지 나오면서 0-5가 됐다.

손영민이 투입돼 남은 아웃카운트 하나를 삼진으로 채웠지만 5회는 막지 못했다.

연속 안타에 이어 희생땅볼로 1사 2·3루, KIA의 네 번째 투수로 김윤동이 나섰지만 좌전 안타로 희생플라이로 두 명의 주자에게 모두 홈을 허용했다. 0-7까지 점수가 벌어지면서 경기의 흐름은 급격히 LG로 기울었다.

이후 KIA는 8회 한승혁, 9회에는 임창용을 투입해 추가 점수는 주지 않았지만 타선이 터지지 않았다.

8회초 1사에서 버나디나의 몸에 맞는 볼에 이어 이명기와 안치홍의 연속 안타가 나왔지만 1점을 만회하는 데 그친 KIA는 최형우의 삼진, 신종길의 1루수 파울 플라이로 추가 득점 기회를 날렸다.

주말 3연전 내내 수비에서 허점을 보이며 출전을 펼친 KIA는 결국 지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패배를 안겨주었던 LG와의 시즌 첫 만남에서 1승 2패를 기록하며 아쉽게 발길을 돌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끝없다

김태균 65경기 연속 출루

김태균(35·한화 이글스)이 KBO 리그 연속 출루 신기록을 65경기로 늘렸다.

김태균은 23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2017 타이어뱅크 KBO리그 kt 위즈와 방명경기에서 4번 지명 타자로 출전해 첫 타석에서 내야안타를 때려냈다.

2회초 선두타자로 타석에 들어선 김태균은 kt 선발 고영표의 초구를 공략해 2루수 방면으로 느리게 굴러가는 땅볼을 쳤다. 거포 김태균을 의식해 수비 위치를 뒤로 많이 물린 2루수 박경수가 뛰어왔지만, 타구가 워낙 느려 박경수는 공을 잡은 뒤 1루에 던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로써 김태균은 지난해 8월 7일 NC 다이노스와 경기부터 시작한 연속 경기 출루 행진을 65경기째 이어갔다. 하지만 김태균에게서 보기 드문 내야안타의 대가는 컸다.

김태균은 전력질주의 영향 탓인지 1루에 도착한 뒤 허벅지 부위를 계속 매만졌다. 결국, 김태균은 1사에서 대주자 최진행과 교체돼 디그아웃으로 들어갔다.

김태균은 전날 5타수 4안타 2타점 맹타를 휘두르며 2006년 롯데 자이언츠 소속으로 뛰었던 펠렉스 호세(63경기)가 세운 KBO 리그 역대 최다 연속 출루 기록을 넘어 신기록을 썼다.

한화 관계자는 "김태균은 오른쪽 허벅지 통증을 호소해 선수 보호 차원에서 교체했다"며 "정확한 상태를 알기 위해 내일 병원에 가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끝냈다

오승환 4경기 연속 세이브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23일 4경기 연속 세이브 행진을 벌이며 '끝판대장'의 위용을 뽐냈다.

KBO리그에서 건너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에릭 테임즈(31·밀워키 브루어스)는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 3볼넷을 기록했으나 오승환과 맞대결은 피했다. 오승환은 이날 2017 메이저 리그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원정에서 4-1로 앞선 9회말 등판, 1이닝을 삼자범퇴로 완벽히 틀어막으며 팀 승리를 지켰다.

오승환은 이를 연속이자 4경기 연속 세이브를 쟁겼다. 오승환은 전날 경기에서도 1이닝 1피안타 3탈삼진 무실점으로 시즌 3호 세이브를 거뒀다.

오승환의 무피안타 경기는 올 시즌 들어 처음이다.

오승환은 첫 상대 도밍고 산타나를 중견수 뜯공으로 잡았다. 중견수 랜달 그리치의 호수비가 오승환을 도왔다. 셋 번트를 2루수 뜯공으로 처리한 오승환은 캐논 브록스톤 1루수 땅볼로 잡아내며 임무를 완수했다. 이날 오승환의 포심 패스트볼 최고 속도는 시속 152km를 기록했다.

앞서 밀워키의 2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한 테임즈는 8회말까지 4차례 타석에 1타수 무안타 3볼넷 1삼진을 기록했다.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는 4경기 연속 무안타 침묵을 깨고 1안타 1볼넷으로 멀티홈런에 성공했다.

추신수는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홈경기에서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 3타수 1안타 1볼넷 1삼진을 기록했다.

1회말 무사 1루에서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났지만, 3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맞은 두 번째 타석에서는 중전 안타를 뽑아냈다. 이후 마이크 나폴리 타석에서 도루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팀은 1-1로 맞선 9회말 엘비스 안드루스의 끝내기 좌전 적시타로 3연승을 달렸다.

/연합뉴스

클레이코트의 황제 나달, 흠집대에 또 누울까

ATP 마스터스 결승 올라

라파엘 나달(7위·스페인)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롤렉스 마스터스(총상금 427만3775 유로) 결승에 올랐다.

나달은 22일(현지시간) 모나코의 몬테카를로에서 열린 대회 7일째 단식 4강전에서 다비드 고핀(13위·벨기에)을 2-0(6-3 6-1)으로 제압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한 나달은 결승에서 알베르트 라모스 비놀라스(24위·스페인)를 상대로 2년 연속 정상에 도전한다.

클레이코트에서 좋은 경기력을 발휘한 나달은 클레이코트에서 열리는 몬테카를로 대회에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 연속 이 대회를 제패했고 지난해 패권을 탈환했다. 올해 우승하면 이 대회에서만 통산 10번째 우승컵을 품에 안게 된다. 프로 선수들의 메이저 대회 출전이 허용된 1968년 이후 특정 대회 단식에서 10번 우승한 남자 선수는 아직 없다.

나달은 또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투어 통산 70번째, 클레이코트 대회 통산 50번째 우승도 달성하게 된다.

나달은 지난해 4월 이 대회와 곧이어 열린 바르셀로나 오픈에서 정상에 오른 이후 1년간 우승 소식이 없다. 다만 올해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 결승에 오르는 등 전성기 시절의 기량을 회복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

그는 2014년 프랑스오픈 우승 이후 지난해까지 메이저 대회 4강 고지를 밟지 못하다가 올해 호주오픈 결승에 오르며 부활을 예고했다. 또 마이애미오픈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결승에 올라 5월 프랑스오픈 전광을 밝게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모나코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 투어 몬테카를로 마스터스 대회 남자단식 경기에서 라파엘 나달(스페인)이 상대 카일 에드먼드(영국)의 공을 받아치고 있다.

/연합뉴스

2년 징계 샤라포바 15개월만에 복귀 '시끌'

"테니스 흥행 도움" vs "출전 특혜 지나쳐"

'러시안 뷰티' 마리아 샤라포바(30·러시아)가 15개월 만에 코트에 돌아온다.

샤라포바가 출전하는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포르세 그랑프리(총상금 71만900 달러)가 24일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개막한다.

샤라포바는 지난해 1월 호주오픈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로 인해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은 샤라포바는 '멜도니움'이 새로 금지 약물에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해 나온 실수라는 해명이 받아들여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부터 자격정지 15개월의 판결을 다시 받았다.

이 대회는 25일로 징계가 만료되는 샤라포바가 출전하는 첫 대회다. 샤라포바는 27일 새벽 1회전에서 로베르타 빈치(35위·이탈리아)를 상대한다.

샤라포바는 1년 넘게 코트에 서지 못해 현재 세계 랭킹이 없다. 따라서 이번 대회 출전 자격이 없지만 대회조직위원회로부

터 와일드카드를 받아 본선 대진표에 이름을 올렸다.

샤라포바의 복귀에는 두 가지 시선이 공존한다.

2004년 윌블던 여자단식 우승으로 화려하게 등장한 샤라포바는 미모와 기량을 겸비해 전 세계 여자 스포츠 선수 가운데 가장 상품성이 뛰어난 선수로 평가받는다. 이런 샤라포바의 복귀는 테니스 흥행과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반면 징계가 만료된 선수에 대한 혜택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던 선수라면 투어 대회에 초청장을 받는 것보다 서킷 대회부터 출전해 자격으로 투어 대회에 복귀하는 것이 옳다는 반론이다. 또 일반적으로 월, 하요일 이를 간 1회전을 마치는 것이 관례지만 징계 만료에 맞춰 샤라포바의 1회전 경기를 주요일에 배정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연합뉴스

광주체중·고, 전국대회 선전

체고, 양궁 안산·역도 문정선 3관왕...고하늘 사이클 2관왕

체중, 사이클 종합 우승...황소진 대회新 등 2관왕 'MVP'

안산(여·17·광주체고 1년)과 문정선(여·18·광주체고 3년)이 전국체육고 체육대회에서 양궁과 역도 부문 3관왕에 올랐다. '한국 여자 사이클 기대주' 고하늘(18·광주체고 3년)은 전국사이클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안산은 지난 20일까지 인천에서 열린 '제 3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 체육대회'에서 30·50m와 개인종합 부문 금메달까지 따내며 3관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안산은 단체전에서 은메달도 획득, 절정의 기량을 과시했다.

문정선도 전국 체육고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압도적 기량을 뽐내며 여고부 역도 53kg급 이하 부문 3관왕에 올랐다. 고

우민도 남고부 56kg 이하급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고하늘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나주시 전남사이클경기장에서 열린 '제 34회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에서 스크래치(7.5km) 부문에서 제일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고하늘은 또 팀 동료인 임은서·박서진과 짝을 이뤄 출전한 여자단체 스프린트에서도 시상대 맨 위에 올라 2관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고하늘은 지난 2월에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 37회 트랙 아시아선수권대회' 및 제 24회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대회' 자전거 여자 주니어 단체추발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등 사이클 기대주의 가능

성을 확인시킨 바 있다.

광주체육중도 이번 '전국사이클대회'에서 여중부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황소진(16·3년)은 여중부 200m 결승에서 대회신기록(12초 571)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여중부 500m에서도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2관왕에 올랐다. 황소진은 또 후배들인 김보민(14·1년), 천윤영(14·)과 출전한 단체추발(2km)·단체 스프린트에서도 각각 동메달을 획득, 4개의 메달을 목에 걸며 최우수선수상까지 받았다. 단체스프린트 여중부 금메달은 전남체중에 돌아갔다.

/김지울기자 dok2000@kwangju.co.kr